

# 『片片奇談警世歌』와 『萬古奇談處世歌』의 출판 배경과 텍스트 지향

육민수\*

- I. 서론
- II. 근대적 출판 환경과 독자 지향의 텍스트화
- III. 『편편기담경세가』 : 애국계몽기의 사회적 경세 지향
- IV. 『만고기담처세가』 : 일제강점기의 개인적 처세 지향
- V. 결론

## 【요 약】

『편편기담경세가』는 1908년 보문사에서, 『만고기담처세가』는 1914년 신구서림에서 활자본으로 출판되었다. 이 두 가사집은 초당문답 계열로, 『후일경계록』, 『초당문답』, 『벽계언집』과 같은 대표적 이본들이 필사본으로 많이 향유되었던 데 비해, 두 이본은 연활자 인쇄 방식에 따른 대량 생산·대량 유통의 근대적 서적 유통 환경 안에서 출판된 텍스트이다. 상업적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좀 더 많은 독자층의 흥미를 자극할 필요성에 따라, 당대의 인기 키워드로 다양한 출판물에서 사용된 ‘기담’이라는 어휘를 표제 안에 포함시켰다. 『만고기담처세가』의 경우는 독자층의 흥미 유도에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더 적극적으로 임해, 당시 독서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소설의 서술 기법을 본뜨기도 한다. 문장체 소설 문투, 서술자발화와 인물발화의 명확한 구분 등이 시도되는데, 이는 여타 초당문답 계열과는 사뭇 다른 사설 양상을 보여준 것이다.

상업적 이윤 추구를 위해 독자층의 흥미 유도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편편기담경세가』와 『만고기담처세가』는 동일한 텍스트 지향을 보인다. 하지만 이 두 가사집은 출판 시기 및 그에 따른 텍스트 산출 환경의 차이 때문에, 전체적인 텍스트 지향은 다르게 파악된다. 『편편기담경세가』의 경우 1908년 보문사라는 천도교 계열 출판사에서 발간되어, 애국계몽기 및 천도교 담론의 특성을 보인다. 일본에 대한 비판, 여성 교육 및 문명, 독립의 강조 등 사회적 警世 지향의 텍스트 특성이 이에 해당한다. 그에 비해 『만고기담처세가』는 1914년에 발간되어 일제강점기 담론의 특성을 보인다. <역대편>의 우리 역사 배제, <사군편>의 누락 등 개인적 處世 지향의 텍스트 특성이 이에 해당한다.

## I. 서론

『片片奇談警世歌』와 『萬古奇談處世歌』는 초당문답 계열의 가사 작품집으로서 각각 1908년과 1914년에 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 다른 초당문답 이본들과 마찬가지로 이 두 텍스트도 유교적 실천 윤리를 제시하고 있다. 가령 <백발편>은 한 노인이 자신의 허량한 삶을 말하고는 자신을 반면교사로 삼아 성실하게 살 것을 권유하는 내용이다. <愚夫篇>이나 <庸婦篇>도, 각각 어리석은 남자와 용렬한 여자의 비윤리적 행실과 그로 인한 패가망신을 조목조목 보여주고 있다. <오륜편>, <부부편>, <장유편>, <붕우편> 또한 편목의 명칭에서 그대로 드러나듯 유교의 핵심 윤리인 오륜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구성 항목과 서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편편기담경세가』와 『만고기담처세가』는 현실 속에서 지켜야 할 실천 윤리를 교훈하는 작품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유교적 교훈과 행동 양식을 강조하고 있는 텍스트에 왜 하필 片片마다 奇談으로 警世한다는 뜻의 ‘片片奇談警世歌’나 세상에 비길 데 없는 奇談으로 處世를 말한다는 의미의 ‘萬古奇談處世歌’와 같은 제목이 붙게 되었을까? 그 해답은 두 가지 층위에서 제시될 텐데, 한 층위는 이 가사집이 근대적 출판 환경 안에서 활자본으로 간행되면서 많은 독자층의 흥미와 관심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텍스트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며, 다른 한 층위는 『편편기담경세가』는 애국계몽기에 간행되어 對사회적 목소리가 강하게 개입되는 방향으로 텍스트화가 이루어진 데 비해, 『만고기담처세가』는 일제강점기에 발간되어 對사회적 목소리는 제거된 채 개인적 修身만을 언급하는 방향으로 텍스트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제시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편편기담경세가』와 『만고기담처세가』의 텍스트 지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첫째, 이 두 가사집의 산출 맥락을 고찰할 것이다. 동일한 언표나 텍스트라도 그것이 생성·산출·향유된 담론 공간(맥락)에 따라 텍스트 지향점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 계열의 이본이라도 필사문화권에서 향유되었는가 아니면 활자문화권에서 출판되었는가에 따라 텍스트의 성격이나 지향점을 다르게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20세기 이전 대부분의 문학 작품이 필사본이나 방각본의 형태로만 유통되던 시기의 이본인 『후일경계록』이나 『벽계언집』 등의 텍스트 지향과, 20세기 이후 신식 활자가 도입되어 기존과는 다른 텍스트 유통 체제가 형성된 시기의 이본인 『편편기담경세가』나 『만고기담처세가』의 텍스트 지향은 다를 것이며, 그렇기에 후자의 두 이본이 보이는 텍스트 지향을 온전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대적 출판 환경이라는 산출

맥락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편편기담경세가』와 『만고기담처세가』 사이에서도 애국계몽기와 일제강점기라는 출판 시기 및 그에 따른 주류 문화 담론의 차이를 각각 고려해야 한다. 둘째, 표제의 특성이나 사설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표제 및 사설을 포함한 텍스트의 전반적 구조는 산출 맥락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독자층의 흥미를 자극하기 위해 ‘기담’이라는 어휘를 썼지만, 여전히 사회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편편기담경세가』와 개인적 차원으로 돌아서 처세 지향이 되어 버린 『만고기담처세가』는 그 표제만큼 사설 양상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대적 출판 환경이라는 산출 맥락과 표제 및 사설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편편기담경세가』와 『만고기담처세가』의 텍스트 지향을 밝히고자 한다.

## II. 근대적 출판 환경과 독자 지향의 텍스트화

### 1. 연활자 출판과 서적의 유통 양상

20세기를 넘어서면서부터 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대중문화의 발달이 구체화하게 되는데 문학의 경우 또한 鉛活字 인쇄라는 근대적 출판 방식에 의해 텍스트가 대량으로 산출, 유통되어 불특정 다수의 독자를 겨냥, 상업적으로 판매되면서 대중적 특성을 점차 뚜렷하게 갖게 된다. 20세기 전까지 대부분의 읽을거리는 필사본이나 방각본의 형태였다. 그러다보니 가사나 소설과 같은 독서물이 생산, 유통되는 상황이 아무래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제한된 독서 계층에 의해 한정된 읽기 자료만이 유통되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근대적 출판 유통 체제를 갖추게 되면서 독서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상업적 목적에 의해 서적이 대량으로

생산, 유통되면서 불특정 다수 대중이 주요 독서층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1883년(고종20) 博文局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인쇄물인 漢城旬報를 발간한 이후 1900년대로 접어들면서 민영 인쇄소가 속속 설립되었는데 1910년경까지 우리나라 사람이 운영하던 인쇄소만 해도 31개소가 확인된다. 이 당시 인쇄소는 근대식 인쇄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 많은 출판물을 간행함으로써 독서 대중화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근대식 인쇄기술이 도입되어 많은 출판물이 간행되자 이를 유통시킬 書鋪 또한 증가하게 된다. 개화기 최초의 서포인 고제홍서포를 필두로 하여 주한영책사(이후 중앙서관), 김상만책사(이후 광학서포), 야소교서회, 대동서시, 동화서관 등의 서포가 속속 출현하게 된다. 초기의 서포는 주로 서울과 평양에 세워졌지만 1907년에 들어서면 점차 지방에도 설립되는데, 고제홍서포 설립시기로부터 1910년까지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의 광고, 기타 서적들의 판권기를 통해 서포의 현황을 파악해 보면 전국적으로 약 140여 개소가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sup>1)</sup>

기존에는 서적이 주로 필사본이나 방각본의 형태로 유통되었기에 제한된 범위에서 적은 양의 유통에 그쳤다면, 20세기를 넘어서서는 연활자 인쇄에 의한 서적의 대량 생산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서포의 전국적 분포로 인해 이전까지의 독서물 유통 범위 및 독서 계층이 넓어지게 되었다. 평양 大同書館에 관한 『황성신문』의 다음 기사에서는, 이전 시기에 비해 훨씬 많아진 1906년 당시의 서적 판매량에 대한 놀라움을 읽을 수 있다.

該 書館員 金興淵 氏가 □日 上京 訶야 新刊書籍 萬餘卷을 數千餘圓

1) 인쇄소 및 서포 관련 내용은 김봉희, 『한국 개화기 서적 문화연구』(이대출판부, 1999) 참조.

價値로 賣去호얏더니 可驚호 만호 것이 不過 一週日內에 書籍 屢千餘 卷을 售出호얏는디 將次 書館을 擴張호고 活版機械를 購入設備호야 新舊書籍을 刊布호 次로 日間 上海로 發往호다더라<sup>2)</sup>

1주일 내에 수천 여권의 서적이 판매되었다는 내용이 기사화한 이유는 서울이나 평양과 같은 도시를 중심으로 판매된 서적의 수가 당대로서는 그만큼 놀라웠기 때문일 것이다. 근대적 출판 유통 체제는 1910년을 전후하여 마련되기 시작했는데, 『편편기담경세가』(1908)와 『만고기담처세가』(1914) 또한 이 무렵 활자본으로 간행된다.

『편편기담경세가』와 『만고기담처세가』는 초당문답 계열의 이본으로, 이 계열은 지금까지 24종의 이본<sup>3)</sup>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되어 19세기 말~20세기 초반의 가사 향유층에게 활발하게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초당문답 계열에서 필사시기를 확인 가능한 이본 중 가장 이른 것이 1896년에 필사된 『後日敬戒錄』이며 그 다음으로는 1898년에 필사된 『藁溪諺集』인데, 이로 보아 19세기 후반 초당문답 계열 텍스트들은 주로 필사본의 형태로 향유, 전

2) 『皇城新聞』, 「雜報」, 1906. 4. 10.

3) 24종의 이본 현황은 다음과 같다. 『草堂問答』(일석본: 서울대), 『草堂問答』(일사본: 규장각), 『가사집』(설태본: 박요순 소장), 『後日敬戒錄』(임형택 소장, 1896), 『백발편』(국립도서관), 『草堂問答』(육당본: 고려대), 『五倫行錄』(강전섭 소장), 『羅孫本』(단국대 을곡도서관), 『藁溪諺集』(정기석 소장, 1898), 『초당가』(장서각, 1911), 『課日誨錄』(고려대, 1918), 『樂志篇』(장서각), 『草堂問答歌』(고려대), 『가사집』(장서각), 『女子戒行』(김미란 소장, 1917), 『白髮編』(장서각), 『片片奇談警世歌』(활자본, 임형택 소장, 1908), 『萬古奇談處世歌』(활자본, 연세대, 1914), 『處世歌』(규장각, 1917), 『樂府』(下) 소재본(고려대, 1933 이진), 『雅樂府歌集』 소재본, 『빅가사』(규장각), 『士女必知五倫行實歌』(『조동일 소장 국문학연구자료』제19권 소재, 1925), 『萬古奇談歌詞』(전남대 소장). 이 중, 『만고기담가사』는 ‘奇談篇’, ‘歷代篇’, ‘夫婦篇’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여타의 이본들과는 달리 ‘기담편’이 편목의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이 텍스트가 도시 대중의 흥미성에 강하게 견인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승)되었음이 확인된다. 이처럼 필사본의 형태로 유통되던 텍스트가 근대적 출판 환경 속에서 활자화한 첫 번째 예가 『편편기담경세가』(1908)이며, 그 다음으로 활자한 것이 『만고기담처세가』(1914)이다.

## 2. 표제의 흥미성 추구

『편편기담경세가』는 <역덕편>, <부즈편>, <군신편>, <부부편>, <장유편>, <붕우편>, <종족편>, <총론편>, <기선편>, <우부편>, <용부편>, <녀즈교육편>, <경신편>, <권농편>, <지기편>, <빅발편>의 16편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만고기담처세가』는 <빅발편>, <덕덕편>, <지기편>, <오륜편>, <부부편>, <장유편>, <붕우편>, <종족편>, <통논편>, <기몽편>, <우부편>, <용부편>, <경신편>, <치산편>의 14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륜을 비롯한 유교적 교훈과 현실적 실천 윤리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奇談을 포함한 제목이 붙은 것은, 상업적 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불특정 다수 대중을 상대로 서적을 판매해야 하는 근대적 출판 환경에서 독자층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표제가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sup>5)</sup>

사실 이 시기, 독자층의 흥미를 끌고자 하는 산출 맥락은 많은

4) 다음은 『藥溪診集』 「後記」인데 필사본의 형태로 전승되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월전에 장경주가광주 장서방 草堂歌라 흥는 은문칙 흥 권을 비며 가로되 이거시 권순포천 권서방가 오더 등출흥였시되 유전흥는 말이 벽게 은집이라 흥니 果然 그러흥오신가 흥야날 님 흥 두 번 일거보니 ... 모든 동지도 중흥계 전스흥고”

5) 김학성, 「잡가의 생성기반과 사설 엮음의 원리」(『세종학연구』12·13집,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8, 13~14쪽)에서는 조선후기의 예술사의 흐름을 도시 여항의 발달과 문화적 성격의 변화 정도에 따라 ‘여항예술의 시기’(17세기에서 18세기 중반까지), ‘시정예술의 시기’(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 ‘도시예술의 시기’(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3단계로 나눈 바 있는데, 『편편기담경세가』와 『만고기담처세가』의 경우 ‘도시예술의 시기’에 해당하는 텍스트라고 하겠다.

‘기담’을 산출시켰다. 『편편기담경세가』나 『만고기담처세가』 말고도 20세기를 넘어서서는 ‘기담’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텍스트들이 꽤 나타나는데,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笑話類로부터 단행본으로 출간된 소설, 설교할 때 필요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성격의 글에서 ‘기담’이라는 어휘가 사용되었다. 몇몇 예를 들어보도록 한다. 잡지와 같은 연속간행물의 경우, 『태극학보』 제8호부터 18호(1907.3.24~1908.2.24)<sup>6)</sup>에 ‘海底旅行奇譚’이 연재되었으며, 『대동학회월보』, 『개벽』, 『별건곤』, 『동광』, 『삼천리』, 『농민』, 『신문계』, 『혜성』 등의 잡지에서 ‘기담’이라는 코너 혹은 기사 제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별건곤』에 많이 실려 있다.<sup>7)</sup> 신문에도 ‘기담’이라는 연표가 사용되었는데, 『매일신보』의 「驚天泣神 萬古奇談」, 『동아일보』의 「奇談·哀話·珍聞·逸事」(1925), 『중앙일보』의 「奇談, 十二夜話」(1932) 등이 있었다.<sup>8)</sup> 『매일신보』의 「驚天泣神 萬古奇談」은 1913년 9월 6일부터 아라비안나이트를 李相協이 번역하여 연재한 것이다.

6) 『태극학보』 제8,9,10,11,13,14,15,16,18호.

7) 『별건곤』 제22호(1929. 8. 1) 발행 때는 「神出鬼沒 奇談篇, 壬辰亂時の 痛快奇談, 騎牛老翁」(尹白南), 「神出鬼沒 奇談篇, 復讎奇談·報恩奇談 片戀處女の 魂」(壽春山人), 「神出鬼沒 奇談篇, 世界奇談, 醫學的 怪談, - 奇談篇其三」, 「神出鬼沒 奇談篇, 中國奇談·艷聞, 情冤鬼·花麗春, - 奇談篇其四」, 「職業奇談, 想像도 못할 珍奇한 實話, 죽은 美人에게 面刀식혀」, 「職業奇談, 想像도 못할 珍奇한 實話, 死刑囚十二人 살린 實話」, 「職業奇談, 想像도 못할 珍奇한 實話, 트레머리협잡」, 「職業奇談, 想像도 못할 珍奇한 實話, 女店員·怪常한 小包」, 「碧骨池上에 白衣老人, 金堤 趙氏家에 傳해 오는 奇談, - 奇談篇其5」 등 9편의 기담이 실려 있다.

8) 『동아일보』 「奇談·哀話·珍聞·逸事」는 1925년 1월 25일 「薄命母女一金拾圓에 몸을 던당」과 「絶代佳人和 紫之井, 덩조를 직히려 움물속에 빠져, 貞婦逸事」로 시작하여, 3월 4일 「四十七歲의 總角處女, 閨中深處獨宿空房 재 념을 내국화리 녀자로서 남장한 李氏의 無男獨女」라는 기사까지,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기이하거나 슬픈 이야기와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실고 있다. 이후 『동아일보』에서는 기사 제목에 ‘洪水中奇譚’, ‘거짓말가튼 事實奇談’, ‘부驟가 나흔 奇談’과 같이 ‘기담’이라는 연표가 간헐적이지만 꾸준히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 『중앙일보』에는 1932년 12월 3일부터 7일까지, 「奇談, 十二夜話」(尹白南)라는 코너가 있었다.



소설이나 소화류 등을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들로, 『오백년기담』(개유서관, 1913), 『오옥기담』(1906), 『옥련기담』(1925), 『고금기담집』(회동서관, 1923), 『강도기담』(구울리서관, 1922), 『만고기담』(1924), 『권선기담』, 『공전절후 세계기담』, 『허풍선이 기담』, 『절세기담 나빈손표류기』(의진사, 1908), 『반만년간 조선기담』(조선도서주식회사, 1922), 『도선나설 청구기담』(조선서관, 1912) 등이 있었다. 이들 자료를 보면, 어떤 것은 ‘기담’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기이하거나 재미있는 내용의 이야기도 있지만 또 어떤 것은 종교 행사 시 설교에 필요한 이야기도 있어 성격이 다양하다. ‘기담’이라고 제목을 붙임으로써 흥미를 유발시키는 책이 많이 발간되었던 점, 그리고 이와 아울러 종교적인 내용의 이야기까지 기담이 되었던 현상은, 판매 이익을 높이기 위하여 독자들의 흥미를 끌어야 하는 상업적 출판 맥락 안에서 이들 텍스트가 산출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 볼 수 있다.

『五百年奇譚』은 大正 2年(1913)<sup>9)</sup> 개유서관에서 간행한 것으로 총180편의 小話を 수록하고 있다. 전하는 이본 중 1920년과 1923년에 간행된 것이 있고 필사본으로 전해지는 이본도 있으며, 1936년 조선 문제 연구소가 간행한 『朝鮮叢書』3권에 일본어로도 수록되어 있어 인기 있는 독서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금기담집』은 大正 12년(1923) 서울 회동서관에서 발행되었다가 약 30년 후인 단기 4285년(1952) 세창서관에서 다시 발행되었는데, ‘아이고 북그러’, ‘남의게 욕을 헐다가 제가 욕을 먹어’, ‘관장의 불법미인의 의견’ 등과 같은 小話가 실려 있다.

한편 『오옥기담』과 『옥련기담』은 모두 소설인데, 『오옥기담』(1906)에는 <금잠가연>, <변씨렬형>, <선분기담>, <취란방귀>, <청누의녀> 등 5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으며, 서울 양신방 퍽평동에

9) 이홍우, 「일제강점기 재담집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5, 20쪽 참조.

서 필사한 자료이다. 『옥련기담』(1925)은 신소설로 87쪽에 걸쳐 옥련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가 펼쳐지다가 마지막 다섯 쪽(87~92쪽)에서 ‘신기흔 이약기’ 아래 ‘불합하든 형대의 감화’, ‘무용한 재판은 피차의 해가됨’, ‘어리석은 가마귀’, ‘욕심만흔 원숭이’의 네 小話가 덧붙여 있다. 『오옥기담』과 『옥련기담』은 소설 제목에 ‘기담’이라는 어휘를 넣어 흥미를 끌고자 한 경우이다.

『講道奇談』(1922)과 『萬古奇談』(1919/1924)<sup>10)11)</sup>은 모두 교회 설교 시 필요했던 텍스트로 보인다. 이는 『강도기담』 卷末의 광고에 “이 척도 강도홀 새에 춤 리치를 썩듯게 홀 죠흔 비유를 슈집흔 척이오”라고 적고 있는 것이나, 『만고기담』 叙言에 “說教 當時에 聽衆의 大惡魔는 卽 睡眠이 是라 故로 本書의 目的은 消極的으로 睡眠을 除去하든 同時에 積極的으로 儆醒을 喚起하야 써 救靈의 域에 達함을 期하든 事”라 말하고 있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도기담』의 경우, ‘강도 듯고 도적놈이 즈복함’, ‘싱전에 선을 핑치 못하든 스후에 후회함’, ‘죄업는 자 누구뇨’, ‘스량은 허다흔 죄를 가리움’ 등등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그 중 ‘죄업는 자……’, ‘스량은 허다흔……’과 같은 것은 ‘롬三〇十’과 ‘벧전四〇八’에 각기 실린 이야기로 성경의 교훈적 일화가 ‘奇談’에 포함되기도 하였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강도기담』과 『만고기담』은 흥미를 끌 만한 일화를 소개함으로써 설교를 듣는 이들의 줄음을 쫓고 성경의 내용을 충실히 전파하려는 목적에서 출간된 자료들이라고 할 텐데, 이렇듯 종교적 교훈을 담고 있으면서도 ‘기담’이라는 제목 아래 묶일 수 있었던 것은 대중적 흥미성이 텍스트 산출에 작용했기 때문이다. 즉 종교 담론은 신비함이나 엄숙함, 진지함 등을 통

10) 1919년이라고 한 것은 서문 기록에 의한 것이며, 1924년은 정정 재판된 해이다. 따라서 초판은 혹 1919년이 아니라 하더라도 1919년과 1924년 사이에 발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11) 이홍우, 앞의 논문(49쪽)에 따르면, 『강도기담』의 발행자는 威嘉倫, 『만고기담』의 발행자는 馬布三悅이며 이들은 모두 서양 선교사였다고 한다.

해 진리를 말하고 삶을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강도기담』이나 『만고기담』 같은 경우는 그러한 성격보다는, 기독교적 교훈을 말하더라도 흥미 있고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곁들임으로써 대중에게 호소하는 어법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기담이라는 말이 잡지·신문을 비롯하여 종교 서적에서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담이라는 어휘가 이렇듯 널리 쓰일 수 있었던 이유는, 20세기 이후 출판물의 대량 생산과 유통이 본격화하며 독자들의 호응과 서적 판매량에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기담’이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화적 맥락에 따라, 초당문답 계열에도 『편편기담경세가』나 『만고기담처세가』처럼 제목에 ‘기담’을 포함한 텍스트가 산출되었던 것이라 하겠다.

초당문답 계열은 활자본이 출판되기 이전,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의 필사문화권에서는 ‘草堂問答’, ‘後日敬戒錄’, ‘藥溪諺集’ 등의 제목으로 주로 유통되었다. 이는 이 텍스트들이 산출되고 향유된 磁場이 교훈적인 내용 강조를 필요로 했거나 혹은 한말의 대표적 유학자인 이항로와 같은 인물의 권위에 기대는 것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후일경계록』이나 『벽계언집』을 읽는 독서 계층은 자신이 향유하는 텍스트가 자신을, 당대 교훈 이데올로기가 제시하는 범주 안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초당문답』이나 『후일경계록』과 같은 텍스트를 향유했을 것이다. 아울러 당대의 巨儒로 존경받으며 『화서문집』이나 『벽계아언』을 남긴 권위 있는 인물의 말을, 자신이 암송하고 또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자부심 속에 『벽계언집』을 향유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목은 상업적 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서적을 판매해야 하는 근대적 출판·유통 환경

에서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그 대신 도시 대중 독자층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고 자극할 수 있는 제목이 필요해졌는데, 그 결과 ‘片片奇談’이나 ‘萬古奇談’과 같은 제목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유교 이념의 요체인 오류를 비롯하여 기타 교훈적 행위 규범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텍스트 산출 환경에 따라 제목 또한 달라진 것이다.

### 3. 소설의 영향과 사실 양상의 변화

독자층의 흥미 유도가 중요한 메커니즘이 되었던 출판 환경에서 발간되었다는 점은, 『편편기담경세가』나 『만고기담처세가』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만고기담처세가』에서는 당대 인기 있던 출판물인 소설의 서술 기법도 보이는데, 이는 『편편기담경세가』에서는 없었던 특성이다. 『만고기담처세가』에서 당대 인기 독서물이었던 소설의 서술 기법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두 텍스트가 제목에서 보여준 차이를 그대로 반영하는 양상이기에 흥미롭다. 이 장에서는 소설의 영향과 그에 따른 사실 양상 변화로써, 『편편기담경세가』보다 더 독자층의 흥미를 지향한 『만고기담처세가』에 대해 고찰하도록 한다. 우선 1910년대에 소설이 당시의 독서물에서 차지하는 위상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애국 계몽기에 출판되었던 서적 중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민족 계몽이나 자강, 독립 등을 다룬 서적이었다. 그러던 것이 1910년을 전후로 하여 구지식인의 교양물에 해당하는 한문 서적이거나 신·구소설 등이 대량으로 간행되었는데 신소설의 경우에는 특히 1912~1914년 사이에, 구소설의 경우에는 1913~1918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간행되는 양상을 보인다. 구시대의 문화 형태를 지속시키기 위한 출판물이나 신·구 소설류가 많이 간행되었던 사정은 1920년대까지 지속되는데,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 조사한

「朝鮮に於ける出版物概要」(1930)에 따르면 1920~1929년까지 허가 받은 출판물 중에 족보(1358건)가 1위, 遺稿(708건)가 3위, 문집(546건)이 5위로 나타났으며, 신소설(959건)이 2위, 구소설(529건)이 6위로 나타나 있다.<sup>12)</sup> 이러한 사실은 1910~1920년대, 전체 출판물 중에서 소설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더욱이 족보나 유고, 문집의 경우 독자가 실제로 읽을 것을 주목적으로 간행했다기보다는 선조의 유업을 기리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우선하기에, 신·구소설이 당시 독서 시장에서 차지했던 의의는 상당했으리라고 판단된다.

연필자 인쇄 방식으로 수백 부씩 출판, 유통된 소설의 인기는 『만고기담처세가』의 본문 사설 짜임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는데, 필사본으로 전승된 『초당문답』(일사본)의 <백발편>과 활자본으로 간행된 『만고기담처세가』의 <백발편>을 비교해 보면 후자에서 소설적 어법을 뚜렷하게 감지할 수 있다.

[가]

春日이 惱困호여 草堂에 누엇더니/精神이 太蕩호여 南柯一夢 잠이 들어/

世事을 頓忘호고 如醉如狂 못씨더니/門前의 一老翁이 糧食달나 求乞호너/

衣服도 縑縷호고 容貌도 憔悴호여/行色도 殊常호고 兒樣쫘츠 怪異호다/

뉘닷스로 늘것는지 氣力업서 歎息호며/뉘닷스로 艱苟호지 못지안는 八字打鈴

늘근거슬 行惡호고 少年보고 資勢호며/남의말 參見호고 問東答西 可笑롭다/

『초당문답』(일사본) <백발편>

12)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3, 488쪽 참조.

[나]

턴하유명 히동조선 한양성너 일위명사 잇스니 시셔와 빅가어를 무  
 불통달하야 제세안민지지를 품은지라 잇써 맛참 춘절을 당하야 화풍이 너  
 붓끼고 춘안이 향복하니 와류싱심슈동유라 만물이 즈락하야 스름의 심  
 슴을 돕는지라 이선비 일년지계를 싱각홀 초로 회원초당에 홀노 누엇  
 더니 춘풍이 스름의 몸을 요동하니 청치 안는 조름이 셋불이 와서 초  
 당에 춘슈죽하니 흥진강늬 슈천리를 순식간에 왕리홀 지음에 문전에  
 었더홀 스름이 와서 괴로이 보척이논 소리에 놀나씨니 덩신이 희미홀  
 쯤에 즈세이 드르니 혼 걸각이라

『만고기담처세가』 &lt;백발편&gt;

[가]는 『초당문답』 <백발편>이고 [나]는 『만고기담처세가』 <백발  
 편>인데 각각 도입 부분을 인용하였다. 인용한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는 가사의 형식적 특성인 4음보 연속체로 서술되고  
 있기에 율동감을 느낄 수 있다. ‘/’은 행이 구분되는 지점인데 한  
 행마다 정확하게 4마디씩 구성되어 있고 이것이 의미론적 종결 부  
 분과 일치하며 반복됨으로써 율동감을 느끼게 된다. 이에 비하여  
 [나]는 그러한 율동감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서술이 되고 있다. 첫  
 번째 문장을 [가]처럼 4마디씩 끊어서 율독해 보면, “턴하유명 히  
 동조선 한양성너 일위명사 / 잇스니 시셔와 빅가어를 무불통달하  
 야 / 제세안민지지를 품은지라”와 같이 되어 의미론적 종결 부분  
 과 일치하지 않게 되며, 의미론적 종결 부분을 기준으로 매듭지어  
 보면, “턴하유명 히동조선 한양성너 일위명사 잇스니 / 시셔와 빅  
 가어를 무불통달하야 제세안민지지를 품은지라”와 같이 되어 역시  
 반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율동감을 느낄 수 없게 된다. 물론 『만고  
 기담처세가』 <백발편>도 이 도입부가 끝나고 “의복이 남루하고 요  
 모가 초취하니 흥식도 슈상하고 모양조츠 괴이하다”라는 대목에  
 오면 4음보 연속체의 형식으로 서술되기는 한다. 하지만 『만고기  
 담처세가』가 여타의 초당문답 계열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와 같은

고소설 내지는 문장체 소설 문투로 도입부를 시작한다는 것은, 당대의 인기 독서물인 소설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만고기담처세가』에서 볼 수 있는 소설의 영향은 이에 머물지 않고 좀 더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발화주체	역할	사 설
가 1	주인	서술자	春日이 惱困하여<...> 一老翁이 糧食달나 求乞하네<...> 其中에도 입으랴고 非帛不煖 노리하네
	주인	인물	姓名은 渠 누시며 居住은 어디메뇨
	주인	서술자	남의 豊事 전혀 밋고 門前乞食 어이하노 저 老人의 舉動보소 嘯嘻歎息 氣가 막혀
	노인	인물	여보쇼 主人네야 乞客보고 웃지마쇼 절머서 虛浪하면 되리 나썬인가 나도 본시 兩班으로 地體도 남만하고<...> 光陰을 虛送 말고 늘기 전에 操心하쇼

『초당문답』(일사본) <백발편>

	발화주체	역할	사 설
A	제3화자	外話서술자	던하유명 禧동효선 韓양성너 일위명사 있스니<...> 만물이 즈락하야 스품의 심스를 돕는 지라 이 선비 일년지계를 칭각할 즈로<...> 괴로이 보치이느 소리에 놀나씨니 덩신이 희미한 중에 즈셰이 드르니 혼 걸킴이라<...> 의관을 정제하고 나아가보니 불성 모양흔 로옹이라<...> 말을 느즈기 하야 무려 왈
	주인	인물	로인이 무엇슬 청하뇨
	제3화자	外話서술자	로인 왈
	노인	인물	너 본시 낭반으로 가세 유여하야<...> 淸인은 일시 기흔을 畧피소서
제3화자	外話서술자	하거늘 淸인이 그 로인의 사세를 궁척이 여겨 일시 기흔을 淸접하야 보시고 도로 초당으로 도라가 고요이 안젧스니<...> 그 로인의	

			형용을 즈세이 궁구하니 의연헌 빅발가라
가2	주인	內話서술자	그 로인의 의복이 남루하고 <...>더 로인의 거동보쇼 희허탄식 기가 딱혀
	노인	인물	여보 소년네들 걸길 보고 웃지마소 절머셔 방탕헌면 이러하니 나쨌인가<...>노는데만 덩신쓰면 철나즈 죽는 썩니 부디부디 습가고 습가홀지어다
B	제3화자	外話서술자	이선빈 그 로인의 전후스를 헤아리고 스스로 탄식하고 즈데질아 등을 디혀야 경계혀야 왈
	주인	인물	스름이 세상에 나올썩에<...>후회막급 쓸디 업슬지어다

『만고기담쳐세가』 &lt;백발편&gt;

『초당문답』(일사본) <백발편>의 경우, [가1]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인과 노인, 단 2명의 화자가 등장한다. 주인이 서술자의 역할을 했다가 다시 인물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비하여 노인은 인물 역할만을 수행한다. 『초당문답』 중 <백발편>만 떼어놓고 보면 전체서술을 統御하는 서술자는 주인이라 할 수 있는데, 주인이 <백발편> 전체서술을 전개하면서 자신의 발화와 노인의 발화를 직접 인용하는 비교적 간단한 구조인 것이다. 그런데 『만고기담쳐세가』 <백발편>의 경우는 상황이 복잡하다. 전체 사설은 표에 서처럼 [A], [가2], [B]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때 중간에 있는 [가2]가 바로 『초당문답』(일사본)의 <백발편>([가1])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가2]의 앞뒤에 위치한 [A], [B]는 새롭게 첨가된 부분인데, 19세기 후반의 초당문답 계열 <백발편>에는 없던 것이 1914년 『만고기담쳐세가』 발간 시 덧붙은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단락이 첨가되었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단락이 첨가되면서 <백발편> 전체가 액자형 구성이 되어 진술 양상이 한층 유기적 구조를 지향하게 되었다는 데에 있다. [A], [B](외화)에 등장하는 화자는 『초당문답』 <백발편>에서는 없었던 제3의



화자로서, 이 화자가 『만고기담처세가』 <백발편>의 전체 서술을 조정하는 역할을 새롭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3의 화자는 <백발편> 전체서술을 조정하는 서술자로서 [가2](내화)의 內話 서술자(주인)와 대비되는 外話 서술자가 되며, [A], [B](외화)에서의 주인과 노인은 모두 인물로 인물 발화만을 수행한다. 한편 [가2](내화)에서는 주인이 서술자(내화서술자) 층위의 발화를 전개하고 노인은 인물 층위의 발화를 한다.<sup>13)</sup> 『만고기담처세가』에서는 주인도 아니고 노인도 아닌 제3의 화자를 설정하여 이 인물이 전체 서술을 조정함으로써 여타의 이본들에 비하여 ‘비교적’ 서술자 발화와 인물 발화가 선명하게 구분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만고기담처세가』는 각 편의 구성이 ‘第一章 白髮篇’, ‘第二章 歷代篇’, ‘第三章 志氣篇’처럼 회장체 구성 방식임을 밝혀놓고 있는데, 그 이전의 필사본 이본들 및 동일하게 활자본으로 출간된 『편편기담경세가』에서조차 나타나지 않았던 이러한 양상도, 소설의 회장체 구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만고기담처세가』는 기법적 차원에서 소설의 서술 패턴에 경도<sup>14)</sup>되어 있는데 이는 이 텍스트의 간행 연대가 신·구 소설이 활발하게 간행되던 1914년임을 고려해 볼 때 당대 도시·대중에게 많이 읽히던 소설류의 어법과 구성 방식이 개입된 것으로, 텍스트를 대중·독자층의 기호에 맞추려 한 결과라 하겠다.

13) 줄고, 「조선후기 교훈가사의 담론 특성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3, 104-106쪽.

14) <우부편>에서도 이러한 양상을 찾을 수 있는데, 다음은 그 예이다. “스릅 이 례절을 츠리기 극난이라 조흔 형실과 조흔 말과 조흔 일 흐기ᄃ 쉬울 터이로되 흐기 어려운 불외형사와<...>다 실여 흐는 빅니 회과흐야 조코 실흔 것슬 분기흐야 실여흐는 데 무뎡지 마시오 우부편에 말이 비록 우 숨거린 듯흐되 사릅은 흐번 헤아림 직흐니 부티 숨가 형홀비라<...>형실을 탐흐고 꺾악을 탐치 말지이다”

## III. 『편편기담경세가』 : 애국계몽기의 사회적 경세 지향

『편편기담경세가』는 隆熙 二年(1908) 서울 北署 安國坊 安峴 10 통 1호 소재의 普文社에서 간행되었다. 『후일경계록』(1896), 『벽계 언집』(1898), 『초당문답』 등의 이름으로 필사문화권에서 향유되던 작품을 저본으로 삼아 활자본으로 간행하며 『편편기담경세가』의 제목을 붙인 것인데, 『후일경계록』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 ‘경세’, ‘경계’의 주제와 의도를 거의 그대로 수용했기에 ‘편편기담 警世歌’로 제목을 붙인 것이다. 천도교 계열 출판사에서 간행한 점과 일제에 대한 비판적 사설을 첨가한 점 등에서 작품의 궁극적 의도가 여전히 ‘경세’, ‘경계’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상에 대한 경계’를 궁극적 의도로 내세우면서도 ‘편편기담’이라는 제목이 포함된 것은, 이 텍스트가 활자본으로 출판되었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즉, 활자본으로 출간되며 판매량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고, 그에 따라 당대 독자에게 주목 받을 수 있는 제목을 붙이게 되었다는 뜻이다. 실제로 ‘편편기담’이라는 어휘는 『대한매일신보』(국문판)에서 먼저 찾아볼 수 있다. 『대한매일신보』는 국문판 발간 첫날인 1907년 5월 23일부터 1910년 8월 28일까지 ‘편편기담’이라는 고정란을 두고 거의 매일 짤막한 이야기기를 실어 총수가 9백편 가까이 되었다.<sup>15)</sup> 다음은 『대한매일신보』 1907년 5월 23일자 국문판 제1호 <편편기담>란에 실린 이야기이다.

## ◎ 편편기담 一

공즈껴서 흐곳에 지나시니 썩나무 우헤 두 녀자가뽕을 썩는지라 공즈ㅣ 보시고 닐으샤되 동편 가지는 박식이오 서편 가지는미식이라 흐신되 동편 가지에 녀즈가 공즈ㅣ를 그로쳐 굴으되 건순 로치에 늪의

15)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제4권(4판), 지식산업사, 2005, 82쪽.

시비를 드르리로다 흐더니 과연 진색와 채색 에서 시비를드르섯고 그 후에 었던 국왕이 아홉구멍잇는 구슬을 보너며 이아홉구멍을다피여 보너라흐디 공즈 | 데즈를 보너여 향자에 쑥나무동편가지에 잇던너즈 를 츠자무르라흐신디 데즈 | 가서츠자보고 쑥슬말흐디너즈가별말업시 쑥기암이 설이라 흐거날 데즈 도라와 그말디로고흐대 공즈 웃고골으 샤대 아홉구멍에 쑥을붓고 기암이 허리에설을미여구슬에 노화 두라흐 셴더라 모양으로사름을취흐지 못홀것

공자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다가 오히려 못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이다. 賢哲한 공자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다는 것이나 뽕 따는 여인에게 도움말을 청했다는 것이 과연 사실이었을까 하는 점에서 기이하기는 하지만 외모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 정도가 담겨 있는 이야기이다. 『편편기담경세가』가 1908년 발행되었으니 이보다 1년쯤 먼저 ‘편편기담’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고, 3년 넘게 고정란으로 이야기를 실었으니 꽤 인기 있던 코너였을 것이다. 『편편기담경세가』가 유교의 실천 윤리를 통해 ‘경세’를 말하면서도 ‘편편기담’이라는 제목을 덧붙인 이유는, 표면적·미시적으로는 『대한매일신보』 <편편기담>란의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심층적·거시적으로는 독자층의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하여 좀 더 많은 서적을 판매하려는 의도 때문이었다고 하겠다.

『편편기담경세가』가 시의에 적합하지 못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경무 총감부의 압수 서적 목록에 들었다는 기록이 있어 주목을 요한다.

각칙사에서 발헝흐는 서적중에 시의에 덕합지못흐자가 잇다흐고 소 위 경무총감부에서 一병압수 흐앗다논디 그셔목은 여좌흐더라

초등대한력스 보통교과동국력스 신당동국력스 대동력스략 <...> 편편기담경세가 쇼으교육 익국정신 (하략)

인용문은 『신한국보』 1911년 1월 3일자 「本國近聞」란에 <분시서 강유싱>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기사인데,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한 후 독립 정신을 말살하려는 의도에서 행한 출판물 검열과 압수를 고발하는 내용이다. 이때 압수된 책은 모두 51종이었는데 우리 역사나 지리를 교육하거나 혹은 외국의 독립, 건국 영웅 등을 소개하는 내용 등이 일제에 대한 저항 정신 및 자주 독립 정신을 기를 수 있기에 압수된 것으로 보인다. 『편편기담경세가』의 경우, 세상을 깨우친다는 뜻의 ‘警世’라는 제목이 일제 강점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과 <역덕편>의 “우리 동방 대한민국은 문물이 찬연하다”, “동양에 덩치 되고 세계에 병가하니 덕의 순숙 우리 신민 문명 독립 해야 보세”라는 구절이 자주 독립을 권장하는 의미를 내포한다는 점 등으로 압수 서적 목록에 올랐던 것으로 판단된다.

“동양에 덩치 되고 ... 문명 독립 해야 보세”와 같은 구절은 애국계몽기의 신문 사설에서는 흔히 볼 수 있지만 여타 초당문답 계열의 이본에서는 볼 수 없는 사설이다. ‘警世’의 제목이야 ‘후일경계록’과 같은 이본에서 비슷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지만, 문명 독립하자는 내용은 다른 이본 계열에는 없으며 『편편기담경세가』에만 독특하게 있다. 1908년 무렵이 애국계몽기여서 자주, 독립, 문명, 개화, 애국과 같이 당대 화두를 담는 어휘가 사용된 것이겠지만, 거기에 더하여 『편편기담경세가』가 普文社라는 천도교 계열 출판사에서 발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설이 첨가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皇城新聞』 「雜報」(1908. 6. 30)에 閔健植, 崔錫彰, 孫秉熙 등이 자금을 모아 보문사를 설립했다는 기사가 실렸는데<sup>16)</sup>, 바로 이 손병희가 최시형에 이어 천도교 교주가 된 인물이다. 그래서인지 보문사에서는 『東經大全』, 『大宗正義』 등을 출간하기도 한다.

16) 『皇城新聞』 「雜報」(1908. 6. 30)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安洞에 在 乎 普文社는 學部書記官 閔健植氏와 度支部書記官 崔錫彰氏와 天道教主 孫秉熙氏가 資金을 鳩聚하여 設立한 것인디”

여성 교육에 대해 새롭게 주목하기 시작한 당대 분위기와 천도교 계열 출판사에서 간행되었다는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편편기담경세가』에는 여자 교육을 강조하여 <녀즈교육편>을 하나의 독립적 편목으로 구성시켰는데, 이것도 다른 초당문답 계열 이본에는 없는 편목이다.

녀즈라 흥는것슨 부덕이 데일이라 이십세기 조흔시대 남녀권리 동  
등되야  
녀즈교육 실시하고 녀즈교데 빈번하다 팔문장안 역만가에 녀즈학교  
드문드문  
근일녀즈 불족시면 긴적삼 통치마에 우산쓰고 양혜신꼬 머리틀어  
복상투에  
침선방적 귀치안코 학식덕형 전혀업시 일어마디 아는체로 여간남즈  
하시흐다  
일본셔도 기화하야 녀즈무도 처음홀제 학부대신 덩실부인 빅인종을  
싱산하야  
가정이 문란하고 주의를 야기하니 녀자교육 잘못하면 남자도 버릴지라  
췌심하고 췌심하야 교스를 선택하계

남녀의 권리가 동등해져 좋은 시대가 되었지만 학식이나 덕행을 갖추는 데에는 관심도 없이 일본어 정도 하는 것으로 거들먹거리 는 여인들을 비판하며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한 편목이다. 부정 을 저지른 예로 개화한 일본 여인들의 행실을 문제 삼는 대목 [밑줄 친 부분]에서는 일제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를 들 을 수 있는데, 『용담유사』 중 부녀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지은 <안심가>에서 “거록흔 너 집 부녀 즈세 보고 안심호소 기 갖튼 왜 적 높이 전세임진 왔다 가서 술싼 일 못히드고 쇠술노 안 먹는 줄.....”의 어조와 닮아 있다.

## IV. 『만고기담처세가』 : 일제강점기의 개인적 처세 지향

『편편기담경세가』에 이어 두 번째로 활자화한 것이 大正 三年(1914) 서울 南門 紫岩 42동 10호 소재 新舊書林에서 발매, 朝鮮書館에서 발행한 『만고기담처세가』이다. ‘萬古奇談’이라는 표현도 『매일신보』의 「驚天泣神 萬古奇談」(1913)란에서 먼저 찾아볼 수 있는데, 『만고기담처세가』가 이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편편기담경세가』의 경우와 같이, 독자들의 호기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만고기담’을 사용한 것만은 동일한 듯하다. 동일하게 ‘奇談’이라는 명칭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편편기담경세가』와 『만고기담처세가』 사이에는 얼마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1908년에 간행된 『편편기담경세가』는 ‘기이한 이야기[奇談]’라는 말이 나오기는 하지만 결국 텍스트의 지향은 ‘세상을 경계[警世]’하는 데 있다. 동학과 애국계몽기라는 자장 내에서 일제 강점에 대한 비판을 비롯하여 교훈적 목소리를 제법 내고 있는 텍스트인 것이다. 그러나 1914년에 간행된 『만고기담처세가』에서는 警世가 ‘處世’로 바뀌게 되는데, 이는 이 텍스트의 관심과 서술 초점이 사회에서 개인적인 영역으로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더하여 1914년이라는 발행 시기 때문인지 일제 강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아예 사라졌다. 그러한 ‘處世歌’에 ‘萬古奇談’이라는 흥미 위주의 수식어만이 덧붙어서 만들어진 제목이 바로 『만고기담처세가』인 것이다. 『편편기담경세가』가 『후일경계록』이나 『벽계언집』과 같이 여항·시정의 교훈 담론 텍스트를 수용하여 이를 애국계몽기와 동학이라는 사회적, 이념적 자장 안에서 비판적 목소리로 새롭게 다듬어 낸 텍스트라면 『만고기담처세가』는 일제강점기라는, 전통적 가치·이념 및 민족자강·독립정신과 같은 사회적 관심으로부터의 이탈을 강요받는 자장 안에서 주로 개인적 윤리와 처세를 강조하는 목소리로 다듬어낸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만고기담처세가』는 다른 초당문답 계열과 달리 우리 역사에 대한 서술을 배제하고 있는데, 『후일경계록』, 『편편기담경세가』, 『만고기담처세가』의 각 <역대편> 비교를 통해 이를 고찰하도록 한다.

슬푸다 天時런가 夷狄이 돛 盛호여 靈古塔 현壯士가 削髮을 시게쓰나  
①海東 朝鮮國은 衣冠이 依舊호다 太白山 檀木下의 神人이 降臨호여  
與堯로 並立호니 檀君적 所傳이요 商나라 佯狂臣을 武王이 封호시스  
<...>

四百七十 五年안의 李氏朝鮮 되어스니 漢江水는 千年水요 人王山는  
萬歲로다

우리도 언제나 聖主을 모시구겨 中原을 恢復호고 立身揚名 호여볼가  
(하락)

『후일경계록』 <역대편>

슬푸다 蕪時런가 니빅여년 되단말가 만주에서 굴기호니 익신각나  
세계로다

①우리동방 대한민국은 문물이 찬연호다 티빅산 단목호에 신인이 강  
림호사

여요로 병립호니 단군썩 도션이오 은나라 양광신이 피쥬동너 호오신후  
<...>

스빅칠십 오년만에 대성군이 용흥호샤 턴운을 회복호고 흥업을 창  
시호야

아 태조 고헩테의 성자신손 계승호니 한강수는 천년이오 왕산은 만  
세로다

동양에 덩치되고 세계에 병가호니 덕의순숙 우리신민 문명독립 호야보세  
『편편기담경세가』 <역대편>

덕명이 증턴호니 성즈신손이 계승호스 레악이 다시받고 문물이 빈빈터니  
슬푸다 蕪時런가 이덕이 쏘다시 성호야 령고탑 훈장스가 속발을 식엿도다

『만고기담처세가』 <역대편>

『후일경계록』, 『편편기담경세가』, 『만고기담처세가』의 각 <역대편> 마지막 부분인데, 『만고기담처세가』의 사설이 유독 다르다. 『후일경계록』, 『편편기담경세가』, 『만고기담처세가』의 각 <역대편>이 주로 중국 사적을 나열하는 것은 동일하다. 그런데 『후일경계록』, 『편편기담경세가』의 경우에는 중국의 역대 성쇠를 진술하다가 후반부에 오면 ㉠, ㉡처럼 우리나라의 역사 서술로 전환한 후 마무리된다. 하지만 『만고기담처세가』의 <역대편>은 인용문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역사를 기술하는 부분을 생략한 채 마무리하였다. ‘일제강점기’ 발간이라는 시기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인 것이다.

『만고기담처세가』가 오륜 중에서 군신유의 항목을 누락시킨 것도, 전통적 이념을 배제하고 탈사회화를 지향함으로써 개인적 처세 중심으로 텍스트를 구성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초당문답 계열 중 몇몇 이본의 구성 양상을 살펴 이에 대해 논의토록 한다.

- 『後日敬戒錄』: 雜歌/知機篇/歷代篇/五倫篇/事君篇/夫婦篇/夫人箴/長幼篇/總論章/開蒙篇/愚夫篇/庸婦篇/警身篇/治產篇/樂志篇
- 『草堂問答』(一簣本): 白髮篇/歷代篇/知己篇/五倫篇/事君篇/夫婦篇/婦人箴/長幼篇/總論章/開蒙篇/愚夫篇/庸婦篇/敬身篇/治產篇/樂志篇
- 『片片奇談警世歌』: 歷代編/父子編/君臣編/夫婦編/長幼編/朋友編/宗族編/總論編/改善編/愚夫編/庸婦編/女子教育編/敬身編/勸農編/知幾編/白髮編
- 『萬古奇談處世歌』: 白髮篇/歷代篇/志氣篇/五倫篇/夫婦篇/長幼篇/朋友篇/族宗篇/統論篇/開蒙篇/愚夫篇/庸婦篇/警身篇/治產篇
- 『女子戒行』: 오륜법이라/니몸공경하난법이라/치산하난법이라/임금섬기난법이라/부부편이라/부인경계편이라/어른아히더리섬기난법이라/오륜말리라/아히들가라치난법이라/어리셔근사나의가라치는법이라/어리셔근부인가라치는법이라/白髮篇(백발편)이라/樂志篇
- 『士女必知五倫行實歌』: 五倫歌/敬身歌/治產歌/事君歌/夫婦歌/夫人箴/長幼歌/總論/白髮歌/開蒙歌/愚夫歌/庸婦歌/樂志歌/弄璋歌



위의 구성 양상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초당문답 계열이 <사군편>, <군신편>, <임금섬기난법이라>, <사군가>라는 제목 하에 군신유의 항목을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일회록』(1918)은 <사군편>이 서술되어 있지 않지만 제목은 소개하고 있으며, 위에서 소개한 『女子戒行』이나 『士女必知 五倫行實歌』<sup>17)</sup>처럼 규방에서 부녀자들이 주로 향유했을 이본에도 군신유의 편목을 두고 있다. 이처럼 여타의 초당문답 계열이 군신유의를 다루고 있음에도 『만고기담처세가』(이의 필사본 포함)에서만 유독 이 항목이 누락된 것은, 개인적 처세 중심의 텍스트 구성 결과였다고 하겠다.

## V. 결 론

본고는 鉛活字 인쇄라는 근대적이면서도 상업적인 출판 방식의 도입에 따라 기존의 필사문화권에서 활발하게 유통되던 가사 텍스트에 대중-독자의 담론화 기제가 어떤 양태로 개입하게 되는가에 일차적으로 주목하여, 초당문답 계열 중 활자본인 『편편기담경세가』와 『만고기담처세가』를 우선 논의 대상으로 삼아, 이들 가사집의 출판 배경과 텍스트 지향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오륜 등 교훈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편편기담’, ‘만고기담’ 등의 어휘를 표제에 포함했었던 것은 상업적 이윤 추구가 주요 목적인 근대적 출판 환경에서 간행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논하였다. 즉, 독자들의 흥미를 유도, 자극함으로써 판매량을 늘려야 하는

17) 초당문답 계열은 지속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것 같다. 1914년 『만고기담처세가』의 활자본 발간 이후에도 『士女必知 五倫行實歌』(1925)라는 제목으로 간행된다. 『만고기담처세가』보다 약 10년 후의 텍스트이기는 하지만 ‘기담’과 같이 대중의 흥미를 자극하는 표현은 쓰지 않았으며 소설적 기법을 차용하지도 않았다.

출판·유통 상황에서 ‘기담’이라는 어휘가 대중·독자층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키워드였다는 점을, ‘기담’을 표제 안에 포함한 당시의 많은 서적 및 기타 출판물을 통해 살펴보고, 이러한 출판 상황의 텍스트화 전략에 의거 ‘편편기담’, ‘만고기담’의 제목이 붙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당시 독자층에게 인기 있는 독서물이었던 소설의 서술 기법을 『만고기담처세가』 <백발편>, <우부편> 등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것도 같은 상황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편편기담경세가』는 1908년 애국계몽기에 보문사라는 천도교 계열 출판사에서 발간되었기 때문에 다른 초당문답 계열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일제에 대한 비판 및 문명 독립과 관련한 사설을 첨가시키고 있었다. 對사회적 경계의 목소리가 강조된 텍스트인 것이다. 그에 비해 『만고기담처세가』는 1914년 일제강점기에 발간되었기 때문에, 일제에 대한 비난이나 전통적 이념 관련 사설은 사라진 채 개인적 차원의 修身 관련 사설로만 주로 구성되었는데, <역대편>에서 우리 역사 서술을 제거한 것이라든지 군신유의 항목을 누락시킨 것이 이에 해당한다.

주제어(Key words) : 편편기담경세가(pyeonpyeongidamgyeongsega),  
만고기담처세가(mangogidamcheosega),  
근대적 출판(modern publication), 기담(strange story),  
표제(title), 소설(novel),  
애국계몽기(the period of patriotic enlightenment),  
경세(warning to the world),  
일제강점기(Japanese Colonial Period),  
처세(get on in the world)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강도기담』, 구을리서관, 1922.  
『고금기담집』, 회동서관, 1923.  
『대한매일신보』(국문판), 「편편기담」, 1907. 5. 23.  
『동아일보』, 「奇談·哀話·珍聞·逸事」, 1925. 1. 25~3. 4.  
『도선나설 청구기담』, 조선서관, 1912.  
『만고기담』, 1924.  
『萬古奇談處世歌』, 신구서림, 1914.  
『매일신보』, 「驚天泣神 萬古奇談」, 1913. 9. 6.  
『반만년간 조선기담』, 조선도서주식회사, 1922.  
『蘅溪諺集』, 1898.  
『별건곤』 제22호, 1929. 8. 1.  
『士女必知 五倫行實歌』(1925; 『조동일 소장 국문학 연구자료』 제19권, 박이정, 1999 소재).  
『신한국보』, 「本國近聞」, <분시서경유상>, 1911. 1. 3.  
『오백년기담』, 개유서관, 1913.  
『오옥기담』(1906).  
『옥련기담』(1925).  
『중앙일보』, 「奇談, 十二夜話」, 1932. 12. 3~12. 7.  
『草堂問答』.  
『태극학보』 제8~18호, 1907. 3. 24~1908. 2. 24.  
『片片奇談警世歌』, 보문사, 1908.  
『皇城新聞』, 「雜報」, 1906. 4. 10, 1908. 6. 30.  
『後日敬戒錄』, 1896.

### 2. 단행본

- 김봉희, 『한국 개화기 서적 문화연구』, 이대출판부, 1999, 29~91쪽.

- 성무경, 『가사의 시학과 장르실현』, 보고사, 2000, 168~169쪽.  
임형택, 『옛노래, 옛사람들의 내면풍경』, 소명출판, 2005, 129~132쪽.  
조동일, 『한국문학통사』제4권(4판), 지식산업사, 2005, 82쪽.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3, 488쪽.

### 3. 논문

- 김학성, 「잡가의 생성기반과 사설 엮음의 원리」, 『세종학연구』12·13집,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8, 13~14쪽.  
육민수, 「조선후기 교훈가사의 담론 특성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3, 104~106쪽.  
이홍우, 「일제강점기 재담집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5, 20, 49쪽.  
최진형, 「<심청전>의 전승양상-출판문화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판소리연구』제19집, 판소리학회, 2005, 184쪽.

The Publishing Background and Text Intention of  
'Pyeonpyeongidamgyeongsega' and 'Mangogidamcheosega'

Yook, Min-Su

'Pyeonpyeongidamgyeongsega'(편편기담경세가) was published by Bomunsa in 1908. And 'Mangogidamcheosega'(만고기담처세가) was published by Singuseorim in 1914. These texts were different version of 'Chodangmundab'(초당문답) like 'Huilgyeonggyerok'(후일경계록), 'Byeokgyeunjib'(벽계언집). They were published in environment of modern publication that was produced and consumed in large quantities. It was necessary to stimulate interest in the reader for pursuit of profits.

Therefore the word of gidam(strange story) was included in title. Also, 'Mangogidamcheosega' was influenced by novel. The novel have gained in popularity with the mass of people at that time. There is difference between the two.

'Pyeonpyeongidamgyeongsega' was published by Bomunsa in the period of patriotic enlightenment. Bomunsa was the publishing company that have some connection with the Cheondo religion. Therefore there were acute criticism against Japanese, the education of women, civilization and independence in 'Pyeonpyeongidamgyeongsega'. 'Pyeonpyeongidamgyeongsega' was aimed at social criticism.

'Mangogidamcheosega' was published in Japanese Colonial Period. Therefore Korean history was expurgated in 'Yeokdaepyeon'(역대편). 'Mangogidamcheosega' was constructed except 'Sagunpyeon'(사군편).

육민수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주소: 131-782 서울시 중랑구 신내1동 중앙하이츠 Apt 1동 311호

전화번호: 집: 02-2207-5580 휴대전화: 019-309-5580

전자우편: [skku6minsu@hanmail.net](mailto:skku6minsu@hanmail.net)

이 논문은	2007년 4월 27일	투고하여
	2007년 6월 2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7년 6월 30일	간행함